

전남교육청 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출범



전남도교육청이 민선3기 장식용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권역별 진학지원센터가 목포권역 개소를 시작으로 본격 서비스에 돌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오전 목포교육지원청에서 목포권역 진학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

목포·여수·순천·나주 등 4곳에 센터 개소
일반고 학생 진로진학 상담·정보제공 서비스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진학지도는 물론 학생·학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교사들의 대입지도 전문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둔다는 게 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식용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 이혜제 전남도의원, 김재점 교육장을 비롯한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 4개 권역 상당교사단 대표 등이 참석해 센터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했다.

장식용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4개 권역 진학지원센터를 통해 소중하고 특별한 전남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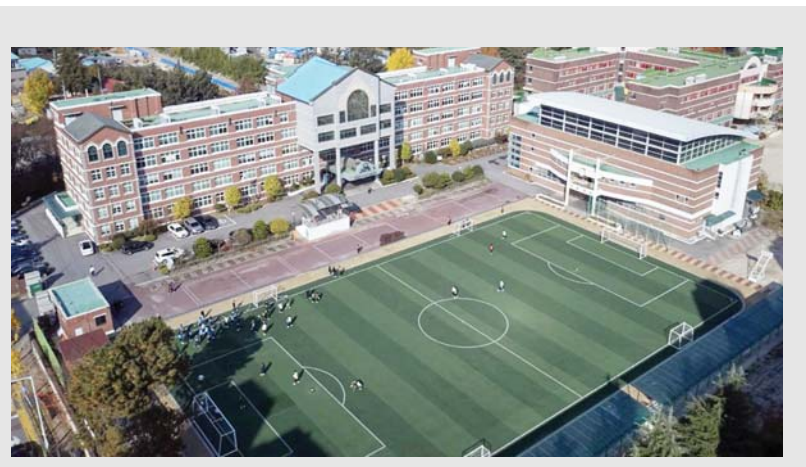
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이어 이날 오후 목포문태고등학교에서는 전남 서부권역 2020학년도 대입정보박람회 열렸으며, 8일에도 순천북성고에서 동부권역 박람회가 개최된다.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전국 54개 대학 및 대입현장지원단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학별 2020학년도 대입전형 안내 및 상담 △1:1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입시정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날 문태고에서 열린 서부권역 박람회에는 대입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 2,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김정환 기자



비아중, 2023년 3월 ‘비아고’ 완전 개편 광주시교육청 설립 승인...광산구 원거리 통학 해소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에 위치한 비아중학교가 2023년 3월에 비아고등학교로 완전 개편된다. 비아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전환절차를 거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12일 학교법인 무양서원으로부터 ‘(가칭)비아고등학교 설립인가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및 시설·설비 상황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검토해 6월7일 2020년 3월 비아고등학교 설립인가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비아고 설립인가로 학교 설립과 이설이 쉽지 않은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문제는 다소 해소될 예정이다. 광산구 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도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개편을 위한 후속 절차로 비아중학교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입생을 4학급 규모로 배정하고, 이후 2021년부터는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비아고는 2020년 3월부터 신입생을 5학급 규모로 배정해 2021년 10학급, 2022년부터 15학급(남 6학급, 여 9학급, 375명) 규모로 운영된다.

시교육청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은 “이번 비아고등학교 설립인가 승인으로 광산구 내 고등학교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순천대, 동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순천대학교가 부산의 명문 사립 대학과 손을 맞잡고 교육 및 학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순천대(총장 고영진)는 3일 대학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 분야 교류를 통한 학문 발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우수 증진과 대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우선, 양 대학 교수와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학문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학점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 및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학술 자료와 출판물,



시설물 등을 서로 자유롭게 이용할 예정이다.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취업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 대학인 동아대학교와 손을 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순천대가 새롭게 선포한 ‘지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전남대표 국립대학’이라는 비전을 더 날라온 성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남교육청,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확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식용)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실수업을 주도할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고금중학교, 4일 강진중앙초등학교에서 도내 디지털교과서 연구·선도학교 관리자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디지털교과서 활용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형 국·검정 교과서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사회, 과학,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도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농산어촌 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도내 모든 학교(초·중·고)에 무선인터넷망을 완료하고 스마트단말기 보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연수는 도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7교와 선도학교 72교의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 수업장학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디지털교과서 이해



하기 및 활용하기 학습커뮤니티로 소통하기 등의 내용을 이론과 실습 중심 연수로 진행했다.

특히, 학교 급 별 특성을 고려해 초·중·고교로 나눠 디지털교과서 활용 공개수업을 실시해 참석 학교관리자들에게 디지털교과서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연수에 참여한 약초초등학교 김정렬 교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수업혁신의 비전을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원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교육 학교현장 달구는 ‘민주시민교육’

여남중·고 교사들 연수

여수반도 남쪽에 위치한 여남중·고등학교(교장 정규문)에는 요즘 민주시민교육 등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 열기가 한창이다.

“사제촌 맺기운동”, ‘유학오는 삼마을학교’ ‘교육공동체 10.10 협약운동’ 등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이 학교의 최대 강점은 민주적인 학교 조직문화와 교사들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다.

특히 전남도교육청 지원으로 연중 연수원학교(16차시)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 중심의 수업실천 등 전문적학습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율 연수를 추진 중이다. 모든 것은 교사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운영한다.

지난 5일에도 도교육청의 역점과제 중의 하나인 ‘민주시민교육 강



화를 위해 혁신교육과 전환권 장학관을 강사로 초청해 ‘삶의 주인으로 함께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연수를 실시했다.

올 3월 신설된 민주시민교육팀을 이끌고 있는 전형권 장학관은 이날 강의를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존의 포용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정착하기 위해 교육과정 속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결합해야 하며, 아울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도 학교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양보건대 장학기금 조성 박차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서장원)는 대학의 정상화와 인재양성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입학생 모집과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장학기금 조성은 입학생 연중 모집 및 대학 구조조정 등과 함께 서장원 총장의 부임 당시 3대 주요 공약사항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27일 부임한 서장원 총장은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3월 27일 전남지역 36개 고교 교장들과 3

학년 부장들에게 서한을 보낸데 이어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권 15개 고교를 방문, 2020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왔다.

서 총장은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민과 기관·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금호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회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